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계절입니다. 한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방박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전히 인생의 짐은 무겁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 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전하며, Merry Christmas!!!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장석남 목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교회에 부임해서 올해 7월까지 동고동락하던 70인전도대원 여러분과 앞서서 수고하시는 김상태부장님, 박정임 차장님을 비롯한 부장단과 각 팀을 진두지휘하는 팀장님들과 임원 여러분의 협조와 수고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도서실 관리부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각종 예배의 앞뒤에서 섬기며 수고하시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성례부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13교구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올 한 해동안 13교구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교구장님과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임원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교구 농촌전도대에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을 지나 빛의 세계로

정수길 목사



스위스 제네바는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 요람입니다. 제네바 대학이 소재한 제네바 공원 안에는 개혁자들의 형상을 새긴 거대한 부조(浮彫, 평면상에 입체적으로 조각된 형상)가 있습니다. 왼손엔 성경을 들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 제네바의 개혁자 파렐(Farel, 1489-1565), 양손에 성경을 받쳐 든 칼빈(Calvin, 1509-1564), 오른손에 Academia가 적힌 책을 들고 서있는 칼빈의 후계자요 개혁가인 베자(Beza, 1519-1605),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John Knox, 1514-1572)가 그들입니다. 바로 그 부조의 위쪽에 다음과 같은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POST TENE BRAS LUX"(포스트 테네 브라스 룩스). 이 말은 "어두움을 지나 빛으로"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네 삶의 자리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질병의 어두움, 실패의 어두움, 물질의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등등. 하지만, 2012년 새해에는 이 모든 어두움을 지나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상은 목사



지난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1,2교구 성도님들, 시간이 겹침으로 늘 부족함을 느꼈던 신혼가정부와 비전2020의 성도님들,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한 아브라함선교회와 사라전도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하반기에 섬겼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있는지를 새롭게 확인하게 해주신 사랑부 성도님들께는 한 분 한 분께 더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상하시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면 모두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교역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연말과 2012년 새해를 맞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서명철 목사



또 한 해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신 11, 12, 16교구의 모든 리더들과 다락방 식구들, 초등부의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모세선교회와 한나전도회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순례자 편집위원들이 보여주시는 모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큰 비전으로 책임을 다하여

임규현 목사



희망과 각오와 다짐으로 맞 이했던 2011년도 어느덧 저물 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함도 많았 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도 우심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 사드리며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박 노철 담임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 도님과 에바다부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통합예배 시 통역으로 봉사하시는 에바다부 교사와 수화교실을 위해 수고해주신 강사와 열심히 배우는 수강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농인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봉사자 분들 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에바다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큰 비전으로 맡겨주신 일 에 책임을 다하며 더욱 충성하며 솔선수범 하 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바라며 기쁜 성탄과 새 해에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 워지며 건강과 기쁨이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황광목사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쉬움 도 많지만 한편으론 뿌듯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없었던 인간의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지, 열정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함이 없진 않았는지 반 성해 보게 됩니다. 좀 더 머릿속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2012년도를 계획하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 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 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은 강가로의 총명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기 를 다짐하고 소원해 봅니다.

2011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한 배를 타고 달려온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합니다. 먼거리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9,10교구 성도님들, 하 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셨던 15교구 성도님들, 늘 설렘으로 함께했던 청년2부,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글로리아 찬양단, 교회교육을 위해 한해 동안 수고를 다하셨던 교 육위원회 모든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새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

박광일 목사



지나온 한 해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시간 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에 부족했지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 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 디아스포라부를 위 해,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 원해주신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고 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서울교회 성 도님들의 기도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확실 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배경애 전도사



올 한해를 되돌아 볼 때 무익한 종에게 베풀 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 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 가운데서도 특히 부족한 종 을 서울교회 사역자로 인도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시복음화’ 와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늘 구령(救靈) 의 열정이 넘치는 70인 전도대 대원들을 만나게 됨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축호팀, 화,수,목 기도팀, 수요노방팀, 수요야간팀, 금요노방팀, 토요일노방팀, 주 일노방팀, 문서팀, 교육지원팀, 전도지원 1,2팀, 대학입시 기도팀, 특례입시 기도 팀 팀장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의 수고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세레반 선생님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에 도 우리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 전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서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 업장 위에 늘 임마누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하며, 또한 영육간의 지경이 깊어지 시고 넓어지시길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Steven Martinlich



Praise the Lord that He is leading us into another year. We pray that 2012 will be filled with His Word overflowing in our lives. Our English

Ministry is not just for foreigners in the surrounding area, but it is for the members of Seoul Church. There are many ways you can become part of this Ministry and even serve in this Ministry. We invite you to join our Discipleship Program, our ‘Reading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our ‘Serving the Community’ Program, our ‘Lean on Me’ Program, our Wednesday night Bible Study, our Tuesday and Thursday morning Conversation/Bible Program, and our 5 o’clock Sunday evening English Praise and Worship Time. Hopefully this is just the beginning to an exciting year to come.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or serving in any of these areas, may the Lord lead you to contact me at any time. Together we can enter into the realit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and together live out our purpose and role as members of His body, His Church. Please keep our English Ministry in your prayers, and take ownership of this Ministry in your hearts. Visit www.seoulem.org to stay in touch, listen to sermons, and get involved.



소금과 빛으로

유문건 목사



"2011년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2012년도를 바라보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랑과 배려로 격려해주시고 한마음 되어주신 3교구와 4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헌신된 대학부의 선생님들과 임원 및 청년들, 교회의 기둥이신 스테반회 안수집사님들, 엘리야 선교회와 에스더 전도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에는 2, 3, 4교구, 새가족부, 스테반회, 찬양위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영광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김안성 목사



부족한 저에게 2011년도에도 유년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늘 기도해 주시는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 모든 당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를 함께 섬겨나가는 귀한 동역자 선생님들의 한결같이 헌신된 섬김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어린이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배와 찬양이 더 기쁨지도록

오세광 목사



부족한 종을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제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울 교회의 찬양과 청년2부를 섬기는 교역자로 세워지게 됨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다락방 리더들과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매우 복된 시간이었고, 또한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서울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내 문제와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기에 더 큰 감사가 넘쳐 납니다.

우리 청년2부 공동체와 함께 한 시간은 비록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을 함께 보낸 것처럼 벌써 끈끈한 사랑을 느낍니다. 청년의 때는 참으로 존귀한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의 가장 선두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을 섬기게 된 것이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2011년 한 해 가운데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를 펴 봅니다. 제 기도의 자리에 항상 우리 서울 교회의 예배와 찬양이 더 기쁨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2부 공동체가 더욱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큰 부흥의 주역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마무리 하는 그 어느 날, 지금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은퇴감사의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혜영 전도사



"말(馬)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사고가 주류를 이루었던 1957년, 서울로 유학오면서부터 뜨뜻했던 모태신앙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하여 신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완고하신 할아버지 의지로 의사표시도 못한 채 가정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업 중에도 꾸준한 신학에 관심을 가졌고, 졸업 후에는 수색 야산에 신문팔이, 구두닦이 청소년을 위한 야간천막학교에서 영어교사로, 한하운 시인이 운영하시던 한센 미감아 보육원 교도교사로, 모교 가정대학장 조교로, 중학교 교사교사를 거치게 하시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서울교회에서의 사역은 1999년 1월에 시작하여 만 12년 동안이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의 사역은 새가족부에서 시작하였고, 끝맺음도 새가족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한 부서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부족한 저를 신뢰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한 교사들은 교사이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써 지키려는 순전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서내의 팀 또한 자랑스러울만한 것이어서 내가 할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또한 12년간 저와 함께 했던 또다른 분들은 권사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뛰어 올만큼 열심이었고, 병약자를 심방하고, 목회자 세미나에 김치세미나, 절기별 성찬준비와 대내외의 행사 등 힘에 겨울 정도로 일감이 주어져도 불평없이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교역자라는 명목으로 던진 냉혹한 질책도 묵묵히 받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간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들 모두는 참으로 위대한 서울교회의 어머니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봉사자들이십니다.

상조부를 섬겨오신 모든 분들께도 뜨거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 마지막까지 손과 발이 되어주신 상조위원장, 갈렙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허물을 감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종윤 원로목사님, 박노철 담임목사님, 당회와 서울교회 성도님들,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직원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동료 교역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부족했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퇴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언제나 이 곳, 하나님의 교회인 서울교회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2011년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글라데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슈보 보로딘~

즐겁고 뜻있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축복이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박노철 담임목사님 그리고 당회, 선교위원회, 서울교회 성도님, 인도기도팀, 각부서 기도팀 모든 분들에게 중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해 주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축하예배와 축하행사 그리고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축하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곳 나가나할리교회에서 성탄절축하예배와 축하행사를 성실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주님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조남예 선교사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올립니다.

인도에서 우상식, 김정옥선교사 올림

만민에게 전도

서울교회 의료선교회 첫 주일진료봉사를 시작하며...

정철웅 집사
(의료선교부, 외과 의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19)

외국인 노동자 120만 시대, 그중에 어렵잡아 10%는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네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기 꺼려하는 소위 3D업종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안디옥 열방교회는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김종일 선교사님께서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의정부 주위로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공단이 있는 지역이 그의 사역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서울교회 의료선교회는 첫 주일 의료봉사지로 그곳을 택하여 귀한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로서 단 두 시간



의 방문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이 얼마나 될까 늘 고민이 되지만 의료혜택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으로 스며들 위로요 사랑일 것입니다.

내년에 서울교회 의료선교회는 격월로 안디옥 열방교회 진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있는 일에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2년 청지기수련회

1월2일(월)~7일(토) 새벽5시 본당에서

2012년도 청지기수련회가 1월2일(월)부터 7일(토) 분까지 매일 각 위원회별로 지도 교역자의 인도로 청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오전 5시부터 5시 지기수련회가 진행된다.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 바란다.

구분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5:00~5:45 (본당)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설교 : 박노철 목사)					
5:50~6:20 (101호)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광 목사)	예배위원 및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 (장성남 / 유문건)	전도위원의 역할과 전도전략 (한상은 / 배경애)	2012 선교일꾼의 자세 (박진아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대상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타 섬김위원

전국시민 양성

장년부가 바뀝니다!

최학인 장로 (교육5국 국장)

살롱! 서울교회 장년부(30대~60대) 성도 여러분! 2012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장년부 성경공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 또한 초대합니다.

2011년까지 진행된 장년1부에서 4부까지의 구분된 성경공부를 전체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성경공부로 성경을 스스로 흥미를 갖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함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도와 줄 장년부 성경공부에 우리 모두 참석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 개강일시: 2012년 1월 15일 10시(매주일 실시함)
2. 장 소: 본당(2층)
3. 지도강사: 김철홍 목사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과 부교수)
4. 교육대상: 장년부(30대~60대 성도 모두)
5. 교육내용: 제1학기 갈라디아서 빌립보서(교재는 준비 배포 예정)

즐거운 성탄을 우리 모두 찬양하며 영광의 길에 동참합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송구영신예배

2012년 1월 1일 0시 본당 / 예배 전 송년음악회

2012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를 1월 1일 0시 본당에서 드린다.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송년음악회가 진행된 후,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송구영신예배가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30분 소등이 되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송구영신예배는 인터넷(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seoulchurch.or.kr> 메인화면)⇒송구영신예배 생

중계)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니 해외에 있는 성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란다.

한편 송년음악회는 아멘관현악단의 개막 연주를 시작으로 구민영(소프라노:임마누엘찬양대원), 박선영(바이올린:대학부), 류충기(테너: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임범창(클라리넷: 아멘관현악단지휘), 여성3중창(김정아,신도란,최유현)등이 출연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린다.

항존직 은퇴 및 장로안식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혜영 전도사 은퇴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집사와 권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울교회 은퇴집사와 은퇴권사로 모시게 된다. 오늘 저녁 은퇴하시는 교역자는 지혜영 전도사 한 분

이며 집사는 최정인, 박태선, 김찬웅, 송재현 집사 네 분, 권사는 공진문, 우선자, 이부자, 전수자, 정봉금, 최봉애 권사 여섯 분이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갖는 장로는 하영수, 노송성, 서문석, 박두호 장로 네 분이다.

특별제직회

2012년 1월 1일 (주) 찬양예배 후

2012년 1월 1일 (주)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와 1월 8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가 각각 본당에서 열린다.

2011년 전도 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울교회에 등록하였다. 70인 전도대에 의한 전도등록이 521명 (52.8%), 서울교회 성도들에 의한 전도등록 186명 (18.8%), 본인 스스로 등록 278명 (28.2%)으로 총 985명이 등록하였다.

주간성경공부 · 신앙강좌 1,2반 · 소요리문답부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주간성경공부 - 132명

1교구: 김선자, 백명자, 박인자, 이소명, 류순임, 윤동수 2교구: 배은희, 안창취, 윤현관, 오종래, 유근중, 이은선, 정봉금, 최형열, 최홍림, 김미자, 최아영 3교구: 김수원, 배재승, 서양지, 이은례, 이혜선, 임본도 4교구: 김복녀, 김혜경, 유기찬, 유명석, 이승민, 이소희, 이지혁, 홍성국, 김영희, 최미희, 손병석, 김현정 5교구: 이광열, 이운영, 임범창, 임선철, 최소희, 최화인, 박창희 6교구: 강영순, 김숙자, 김대은, 김희진, 서영세, 임순자, 유을상, 임정순, 이영희, 이원희, 이춘식, 황보주자 7교구: 김숙행, 김영래, 김태기, 손병근, 오영자, 정연택, 정정희, 김복순 8교구: 임윤자 9교구: 김명희, 김진숙, 유신, 이부자, 임나식, 조상희, 한옥순 10교구: 여현진, 윤전오, 이동찬, 이후경, 이점숙, 이혜선, 최무순 11교구: 나옥녀, 이경희2, 이옥희, 이흥기, 전배호, 조정옥, 국산옥, 이은희 12교구: 강희자, 김인순, 김형택, 남정열, 송성식, 양숙란, 전원순, 정희순, 최근자, 이민화, 이인순, 최광성, 나미경, 박명석, 전숙향, 양동덕 13교구: 김미성, 김동진, 김영식, 김경애, 박성희, 서은석, 오정숙, 이금순, 이경희3, 주화인, 최금봉, 홍건표, 장성자1, 장영순, 김지연 14교구: 김옥순, 원명희, 이명순, 정미연, 최낙준, 최태옥 15교구: 김경희 16교구: 송경옥, 이규희, 장양일, 정복순, 정정숙, 임송자, 최규초, 최금자, 이상호

신앙강좌 수료자 명단

1부-30명: 이덕빈 양기석 박석현 전영돈 최명남 김규환 안창취 오교식 김동두 김상태 이상호 윤전오 노재현 안선광 김현관 고영숙 권순단 이재순 박복

순 남상경 이강인 박명석 김명숙 홍성숙 김자경 김신애 최화옥 김선자 박정순 김진희

2부-73명: 강택근 고원순 박승 김경애2 김미경 김미성1 김사라 김성환 김설아 김수경 김순택 김웅기 김은숙 김정은 김정자 김지은 김철문 김태희 김해수 박경정 박공순 박광수 박덕호 박인규 박은영 박춘선 박중구 박혜선 박화실 배동금 서은석 송인덕 신성균 신호용 안인호 안준홍 오기연 오민세 오세백 오은이 오행숙 우미란 유관도 유덕자 유영신 육순자 윤운 윤태옥 윤형준 이갑수 이선자 이영재 이유성 이인보 이진숙 이종정 이창희 이태원 장호영 전숙향 전연수 정현규 조민자 조복자 주경자 진영숙 최복희 최인수 최화숙 한선현 한준홍 황선옥 황현숙

소요리문답부 수료자-66명

강은정 고경순 공명택 공민호 박옥수 구재경 권준기 금병화 김경희 김광배 김민아 김사라 김용애 김웅기 김유리 김유정 김재수 김정은 김종철 김재원 김현수 노명자 노일영 노종렬 마경녀 박미영 박복순 박준형 박진희 박춘선 배상준 손미현 신성균 신하근 안준홍 양원호 오민세 오세백 오세광 유경희 유복진 유영신 유정일 윤진숙 이광미 이광희 이상범 이상옥 이영수 이옥선 이윤진 이이춘 이재희 이정희 이종국 이진희 장관희 장명순 장미례 전두병 전부일 전연수 전현주 정국주 정순임 정윤희 정재연 조미희 조민자 최규초 최보경 최선 한미희 한창섭 한혁수 하훈 황선옥

특별찬양

오늘 성탄절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 찬양대의 솔로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소프라노 최영은성도와 이실비아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천사들의 노래(J.Rutter곡)", "사랑의 왕(R.Strader곡)" 그리고 찬양모음곡을 김윤지성도의 오르간과 박승기성도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아름다운 하모니의 이중창으로 찬양 드린다

2012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1월 7일(토) 오후 3:30 - 5:30
순결서약식: 1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2년 순결서약식이 1월 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이며 참가신청은 각 담당 교회학교에서 취합하여 12월 28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예루살렘 크리스마스 캐롤

오늘 2부 예배후 예루살렘 찬양대가 만나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 모두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월 26일(월)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에 참여한다. 27일(화) 표준주석편찬위원회 편집,검독위원회를 주관한다. 28일(수) 크리스찬투데이 기독교신문사와 신년대담을 가진다.
- 아가페타운 피아노 기증: 김필임 집사(13교구)
- 개입: 9교구 장광국 집사(주)미티이앤비 중랑구 면목동 458-119 성지빌딩 4층
- 이전개입: 11교구 이현수 집사 누네안경 강남구 대치동 907-15 101호 Tel. 569-4666
- 이사: 서순영 권사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680
- 특남: (11교구) 노선균김의정 성도 가정 (노은환 장로 정정화 권사 장남)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12.25) 리브가전도회(1.1)
- 금주의 식사: 전정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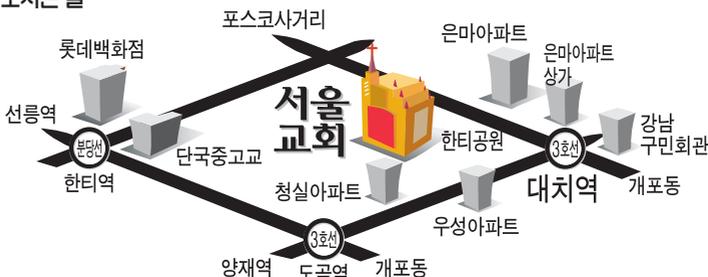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여 우리도 낮은 곳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2.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3. 2012년 첫 주에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